

15) 양궁

우리나라는 1963년에 국제궁도연맹에 가입하면서부터 양궁이 등장, 국제무대에 진출하였다. 순천고 체육교사 김병옥이 1970년 제1회 전국남녀양궁종별선수권대회를 다녀온 후 양궁을 전파하였다. 1972년 7월 김병옥은 제6회 전국남녀양궁종별선수권대회 개인전에서 우승을 하였다. 1973년 4월 1일에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7개월 만에 전남대회를 석권하고 제54회 전국체전부터 전남 도대표로 출전하였다.

순천고의 수많은 선수들이 한국신기록을 경신하였고, 졸업 후 후진 양성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으며, 이기식·윤종찬 등은 한국 여자대표팀의 코치로서 한국 양궁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. 현재 남산초등학교, 이수중, 순천고에서 팀을 육성하고 있다.